

#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 현황과 과제

2020년 서초성평등네트워크



# 2020년 서초성평등네트워크 온라인 포럼 진행순서

○ 일시 : 2020.12.03.(목) 14:00~16:00

○ 장소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강당

시간	세부사항		
14:00-14:07 (7')	[개회]	기관 및 행사 소개	배소령 본부장 (서초여성가족플라자)
14:07-14:14 (7')	[개회식]	개회사	박현경 대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14:14-14:20 (6')	[소개]	참가자 소개	배소령 본부장 (서초여성가족플라자)
14:20-15:00 (40')	좌장 : KBS 정용실 아나운서		
	[발제]	· 발표1 :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 현황과 과제 젠더심리연구소 김정인 소장	
		· 발표2 : 서초지역의 성평등 활동 현황 및 지원방안 밸류가든 최은영 사무국장	
15:00-15:10 (10')	휴식		
15:10-15:50 (40')	좌장 : KBS 정용실 아나운서		
	[토론]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영주 (모두의거실 대표) 서경란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과장)	
15:50-16:00 (10')	[폐회]	배소령 본부장 (서초여성가족플라자)	

# 개회사



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은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한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성평등이 전 생애에 걸쳐 생활 속에 녹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통계 수치적으로는 여성의 고용률이나 남녀 임금격차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일생활 균형도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반해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성별 혐오와 갈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 속에서 여성이 겪는 불편부당한 상황 역시 계속 증가하는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이 요원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산적한 중에도 올해는 특히, 양성평등 분야에서 의미있는 일이 있었던 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이 [여권통문의 날]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는 국가적으로 뜻 깊은 일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는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가 개소하면서 지역의 성평등 문화에 대해 점검하고 맞춤형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을 위해 의미있는 활동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이제 우리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평등 정책과 실행을 통해 우리 구가 추구하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들고 모두 행복한 자치구 서초 구현’에 일로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걸음을 우리 지역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포럼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우리 지역 성평등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지역사회 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이론적인 측면과 현장 활동가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관심을 제고하고 과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민·관·학이 함께 경주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 지역 내 많은 성평등 활동 풀뿌리단체와 활동가들을 규합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양성평등한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대표 박현경

# 발 제

## 발표 1 ..... 5

###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 현황과 과제

젠더심리연구소 김정인 소장

## 발표 2 ..... 34

### 서초지역의 성평등 활동 현황 및 지원방안

벨류가든 최은영 사무국장

발표 1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  
현황과 과제

---

젠더심리연구소 김정인 소장

## 초록

현재 성평등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이며, 성평등 실현을 위해 많은 국가가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성평등 운동이 전개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진국들은 성평등을 사회적인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달성이 곧 국가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성평등과 관련해서 성불평등지수는 2019년 10위를 기록한 반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별격차지수는 140여 개 국가 중 2019년 108위로 세계에서 하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경제·정치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혜택을 남녀가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이면에는 불평등 문화와 사회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성역할 혹은 성별분업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평등 정책 및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 즉 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성평등 교육, 성평등 미디어, 성평등 문화축제, 민간단체의 문화캠페인 등을 들 수 있다. 성평등 교육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로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부족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성평등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매우 효과적인 성평등 문화확산의 매체가 될 수 있음에도 미디어상의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의 개선과 미디어를 통한 성평등 인식 확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성평등 문화축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관변행사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부정적 시선도 있고, 민간단체의 문화캠페인은 대중적 참여를 끌어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상의 성평등 문화확산 방안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인식확산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문화가 조성되고 이를 확산시키려면 지역사회 활동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을 실천하려는 시민을 지역 활동가로 양성하거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으로 바뀌고 있는 현재

에 성평등 인식의 제고는 더욱 절실하고, 남녀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성과 함께하여야 성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기에 남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성평등교육, 성평등문화축제, 성평등 캠페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별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확산 전략이 검토되어야 하고, 특히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직장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들과 연계하여 성평등 인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활동과 사업들을 보다 정밀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잘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성별 상황을 잘 보여주는 세밀한 서초구 성인지 통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들어가며

문화는 일상의 삶에서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문화는 개인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평등 문화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성평등과 관련된 문화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다시금 재생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성평등 문화는 개인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성평등 문화를 재생산하는 순환적 고리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성평등이란 무엇인가? 성평등(性平等)은 모든 사람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관점을 말한다(UN, 1997). 아울러 성평등의 목적은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 걸쳐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동일한 권리, 자원, 기회 및 보호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성평등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이며, 성평등 실현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성평등 운동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아울러 세계 주요 인사들이 성평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최고 운영책임자(COO)인 셰릴 샌드버그는 2015년 중국 칭화대 졸업식 축하 말미에 “성평등은 여성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좋다.”라고 언급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는데, 이때 셰릴 샌드버그는 특별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의 핵심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를 답으로 제시하였다. 즉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새로운 혁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12대 세계은행 총재에 취임했던 김용 총재는 미국 워싱턴DC 갤럽 본사에서 열린 ‘성 데이터 간극 좁히기’라는 주제의 갤럽 및 미국 국무부 공동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통해 ‘성평등이 국가 성장과 경쟁력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성평등은 국가의 주요 목표로도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성평등 선진국으로 언급되는 스웨덴에서는 (양)성평등을 국가혁신의 방법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여 (양)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사회 혁신과 기업 경쟁력 증진의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단순히 (양)성평등을 사회적인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 달성이 곧 국가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경제부 산하의 혁신기구와 기타 기관들을 통해 (양)성평등의식을 포함시킨 기업, 산업, 연구 및 사업 아이디어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수연 등, 2014).

# 우리 사회의 성평등 현황과 문제

## 우리의 성평등 현황

성평등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국가마다 장기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의 성평등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로는 성불평등지수(GII)<sup>1)</sup>와 성별격차지수(GGI)가 있다. 성불평등지수는 생식건강(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권한(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 노동참여(경제활동참가율) 등 3개 부문 5개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2017, 2018, 2019년 연속 10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값을 반영하는 생식건강부문(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에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권한, 노동참여 부문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성별 격차가 큰 분야의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의 정치, 경제 참여 확대, 성별임금 격차 해소, 일상생활에서의 성평등 수준 제고 등을 위한 성평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별격차지수가 아닌가 싶다. 이 지수에 의하면 우리는 140여 개 국가 중 2017년 118위, 2018년 115위, 2019년 108위로 세계에서 하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수는 분야별 성별 격차를 지표화해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며, 성별 격차를 따지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4개 부문 14개 지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경제 참여 및 기회’ 부문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유사업무 임금 성비, 추정소득, 관리직 비율, 전문직 비율’ 성별 격차를 본다.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 권한’ 성별 격차도 살펴본다. 결국 우리의 경우 성불평등 지수에서 세계 상위권이지만 성격차 지수가 하위권이라는 것은 경제·정치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혜택을 남녀가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

1) 기존 여성관련 지수이던 여성권한 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한 국가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회에 관한 불평등을 척도하는 기준이다. 해당 분야는 정치 참여와 의사 결정, 경제 활동과 관련 의결권 그리고 재력 등 경제적 자원에 관한 우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와 남녀평등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는 유엔이 공표하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 중의 하나이다.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하는 5개의 지수 중 하나로서 매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발표된다)가 선진국과 도시 엘리트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대체한 지표이다.

을 살펴보면 최근 20년간 남성 70-75%, 여성 50% 내외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성별로 약 20%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는 20%p의 격차를 보이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시작점이 연도별로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90년대 들어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20대 초중반에서 꺾이던 것이 2000년대 중반부터는 중후반에서 꺾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 원인으로는 결혼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점(초혼 연령의 변화)을 들 수 있다. 한편 20대 중후반까지는 남녀 간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러던 것이 30대를 넘어가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이후 조금 증가하기는 하지만 20대 중후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성불평등한 문화 속에서 형성된 성역할 혹은 성별 고정관념, 성별분업에 대한 생각들이 이러한 차이로 드러났다고 본다.

## 성평등을 저해하는 제반 사건들과 그 배경

우리는 어느 정도 정치적 발전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성차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구성원들의 인식과 배치되게 고용 및 경제부문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 회장을 지낸 모 대학 이사장은 2015년도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서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냐. 졸업 뒤에 학교에 기부금도 내고 재단에 도움이 될 남학생들을 뽑으라.”며 합격자 성비 조정을 지시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어났다.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입전형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학교를 찾아 ‘분노의 분칠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였다. 주목할 점은 그분이 회장님으로 계셨던 그 기업의 2010년 국내 10대 기업 대졸 공채비율에서 남자 81.25%, 여자 18.75%였다는 사실이다. 한편 많은 여학생들이 입사를 원하고 지원도 많이 하는 국내 한 은행에서는 채용비리와 성차별 논란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성 행원이 너무 많으면 곤란해 남성 배려차원에서 가산점 ..... 조작이 아닌 조정..... 타 금융기관에 비해 여성비율 높은 편....”이라고 말하였다. 2009년도 이후 대학진학율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7년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직원 인사 채용에 개입, 면접 순위를 조작해 여성지원자를 집중적으로 탈락시키고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박00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

였다. 조사결과 박 전 사장은 평소 공사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채용 과정의 점수를)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담당자들이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 대상 남자 13명이 최종 합격하고 합격대상에 포함된 여자 7명이 최종 불합격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채용과정에서 이미 성차별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렵게 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입사 후에는 또 다른 장벽이 여성들을 가로막고 있다. 임금, 승진 등에서의 차별과 더불어 결혼을 할 경우 일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이중 부담이다. 임금 격차(2019년 e-나라지표: 남성대비 67.8%)는 OECD 국가들(37개국) 중 32.5%로 가장 크다. OECD 평균은 13%이고, 북구 복지국가인 스웨덴 등은 10%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UN은 2018년도에 흥미를 끄는 자료를 발표했다. 회원국의 여성 관리직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여성관리직비율이 10%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태에 더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맞벌이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에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을 시간을 조사한 결과 여성은 3시간 14분(194분)이었고 남성은 40분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가사노동을 4.9배나 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동연구원(2015)이 개최한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이철희 교수 등은 ‘부모의 남아선호, 성역할 태도와 가사분담’에 대한 논문발표에서 경북 출신의 남자와 결혼한 여성은 경기 출신의 남자와 결혼한 여성에 비해 하루에 가사노동을 68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 ‘일 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연구에서 나타난 맞벌이 부부의 주중 시간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129.5분이었으며, 남편은 17.4분으로 여성이 7.4배 길고 육아 시간도 3.5배나 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배경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및 성별분업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채용과정에서 보인 남성 이사장, 인사담당자 및 공공기관의 사장이 보인 태도들은 다분히 성역할 고정관념에 입각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성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차별적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 내에서의 부부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도 가사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한 인식의 변화를 이를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 의식변화를 위한 성평등 문화확산

## 성평등한 문화의 확산

문화는 한 사회에 오랫동안 전해져오는 가치를 반영한 관습을 토대로 형성된 그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의식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문화는 동시에 의식수준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양)성평등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양)성평등 의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양)성평등 문화가 발달되어 있을 것이며, (양)성평등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다(이수연 등, 2014).

(양)성평등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과 함께 성평등 관련 지표들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양)성평등을 고려하자면 (양)성평등 문화와 의식의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양)성평등 문화는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에 성평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뿐만 아니라 시대변화와 흐름에 맞는 성평등 문화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성평등한 문화는 구성원의 의식을 성평등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이들의 의식은 다시 문화를 평등하게 하는데 기여하여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양)성평등 문화란 (양)성평등 의식이 전제되는 것이어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한 문화의 개입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수연, 2014).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이란 교육이나 캠페인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성평등하지 못한 의식이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성평등 확산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관련 근거들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근거들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4절은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관련된 것으로 제3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고,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등)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양성평등 기본계획은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사업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제5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20조 (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 조성), 제12조(분과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또는 종합계획에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확산 방안”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는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발굴·추진과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의 개선과 대중매체를 통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포함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은 양성평등 의식 제고 또는 양성평등 교육 등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과 공무원”에 대한 성 평등교육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설치를 조례에 포함하고 있다(최유진 등, 2019).

서초구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장 제4절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에서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제32조(양성평등한 가족생활), 제33조(양성평등 교육), 제34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제3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제36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제3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38조(단체 등의 협력과 지원) 등이다.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방안들

## 성평등 교육

개인은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기대치를 부여받는데 이것을 성역할이라 한다. 개인은 성별에 따라 다른 기대치를 부여받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성역할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 이뤄지며 인간의 의식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남인숙, 2009). 아동은 출생 직후부터 성별에 따라 다른 육아 과정을 거친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기준으로 아이를 대한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옷을 입히고 다른 행동을 강화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동은 성역할 및 성별 고정관념도 학습한다. 성역할과 성별 특성이 사회화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고정관념도 생의 초기부터 습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로 교육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어린 시절부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은 2000년대에는 주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개발원과 같은 곳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왔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성평등 교육과 문화확산은 주로 민관협력사업 또는 공모사업 등으로 추진되어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공무원교육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부족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 성평등 미디어

성차별 문화는 마치 공기와 같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무의식적인 힘을 발휘한다. 특히 대중문화는 그 속에 자본주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의도적으로 삽입함으로써 그러한 상품화된 이미지들을 매일같이 접하는 대중들의 의식은 무의식적으로 자본주의적 가치와 정서를 내면화하게 된다(김정선, 2006). 아울러 그 이미지 속에 녹아있는 성별 고정관념 역시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다.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미디어 산업에 의해 생산되어 상품으로 제공되는 산물들을 대중문화라 부르는데, 대중문화는 상업적 의도뿐 아니라 정치적, 성적, 계층적, 편향성을 가지며, 일상의 친숙함을 무기로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 정체성의 형성에도 관여한다(이규선 등, 2010). 이러한 대중문화는 매스미디어에 의존하여 매개되는 특성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는 미디어가 ‘바람직한’ 혹은 ‘부적절한’ 젠더관계를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며, 공교육과는 다른 차원에서 소통과 문화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2항과 3항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것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의 범위를 예시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신문, 방송 등 주류 미디어의 역할을 감시 견제하기 위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성평등한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과 보도 시상,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 여성포털사이트 위민넷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 성별 인력 DB화 및 교육지원, 지역여성문화자원 발굴 및 확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련 사업들은 양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질적으로도 강도 높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성평등 사이버 교구를 개발하거나, 성평등에 대한 뉴스, 구직정보, 우수사례, 교육자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성평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캠페인을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교육만큼이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미디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매우 효과적인 성평등 문화확산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수행되고 있다.

## 성평등 문화축제

전국 차원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 문화축제는 한편으로 성평등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언론이 다루도록 하여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주간, 3·8여성대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여성인권영화제 등은 특정 기간 성평등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국민 혹은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축제형식의 이벤트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여성가족부가 직접 주관하는 여성주간 캠페인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관변행사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따라서 지역 단체 및 개인이 자유롭게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확산 전략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양)성평등 주간의 이미지를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체험형 및 체감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구성된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민간단체의 문화개선 캠페인

민간단체 캠페인들로는 명절문화 바꾸기 캠페인, 회식문화 개선 캠페인, 양성평등 리더십 페스티벌, 절친아빠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캠페인은 성차별적 가치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이기도 하고, 대중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며, 다양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성평등 문화확산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들의 참여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과제

##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의 활성화

우리 사회에서 일상에서의 성평등 문화조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처럼 관 주도로 다양한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일상에서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민간 혹은 지역사회의 역할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지역 중심 혹은 민간 주도의 포괄적인 사업이나 운영체계 등이 아직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지역에서의 성평등 사업은 대부분이 교육 사업으로 대상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과 교육 활동 단체 혹은 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룬다. 성평등 의식확산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문화가 조성되고 이를 확산시키려면 지역사회 활동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을 실천하려는 시민을 지역 활동가로 양성하거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의 캠페인은 성평등 문화확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초구립여성회관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기능을 개편하여 다양한 성평등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초여성플라자<sup>2)</sup>와 연계를 하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본다.

2)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서초구립여성회관의 기능 개편으로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취업지원, 문화나눔, 교육기획, 양성평등, 특별사업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커리어 개발, 생애교육의 4개 영역의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최유진, 2019).

## 남성의 적극적 참여 유도

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뀌고 있는 현재에 (양)성평등의식의 제고는 더욱 절실하다. 그렇다면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은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전략이 그동안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남성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양)성평등에서 남성이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 폭력 추방 캠페인, 일가정양립 등 (양)성평등달성을 위해 파트너로서 남성의 노력을 강조하며 교육, 홍보, 연구 사업 등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이수연 등, 2014). 남성들이 성평등한 의식과 태도를 가졌을 때 성평등 실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평등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젊은 층의 참여 확대

앞서 언급된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 즉 성평등교육, 성평등문화축제, 성평등 캠페인 등과 같은 것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확산전략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양)성평등주간의 이미지를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체험형 및 체감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의 참여를 증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미디어가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매우 효과적인 매체이다 보니 주요 국가들은 성평등 사이버 교육툴을 개발하고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캠페인을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진행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확산과 의식변화를 위해 온라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성평등 직장문화 교육과 캠페인

우리 사회는 일터 종사자들이 직면한 고용이나 직무 관련 명시적인 성차별을 개선하는 제도·정책들(예, 일·가정 양립지원책, 가족친화경영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왔고 나름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것 같다. 특히 일터 전체가 성평등 가치를 중요한 행위의 준거 기준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도록 독려하거나 강제한 경험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사실 직장 내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많은 조사결과들이 보여주듯이 가부장적 인식과 관행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는 각 개인의 의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들과 연계하여 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은 직장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서초구 성인지 통계 작성

성인지 통계란 단순히 남녀별 통계를 내는 성별분리 통계와는 달리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 공헌, 남녀의 욕구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고자 생산, 제시된 통계자료 일체를 말한다.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말한다. 이러한 성인지 통계는 성별로 처한 현실을 확인시켜주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정책 및 사업 목표설정에도 도움을 준다. 이들 통계는 고용, 교육, 복지, 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성평등 관련 사업은 성별로 처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반영하여야 성평등 사업에 대한 질(quality)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에 세밀한 성인지 통계 작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성인지 정책 구현과 성평등 문화사업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서초구의 성인지 통계는 절실히 필요하다.

## 참고문헌

김선욱(2016).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8(3), 121-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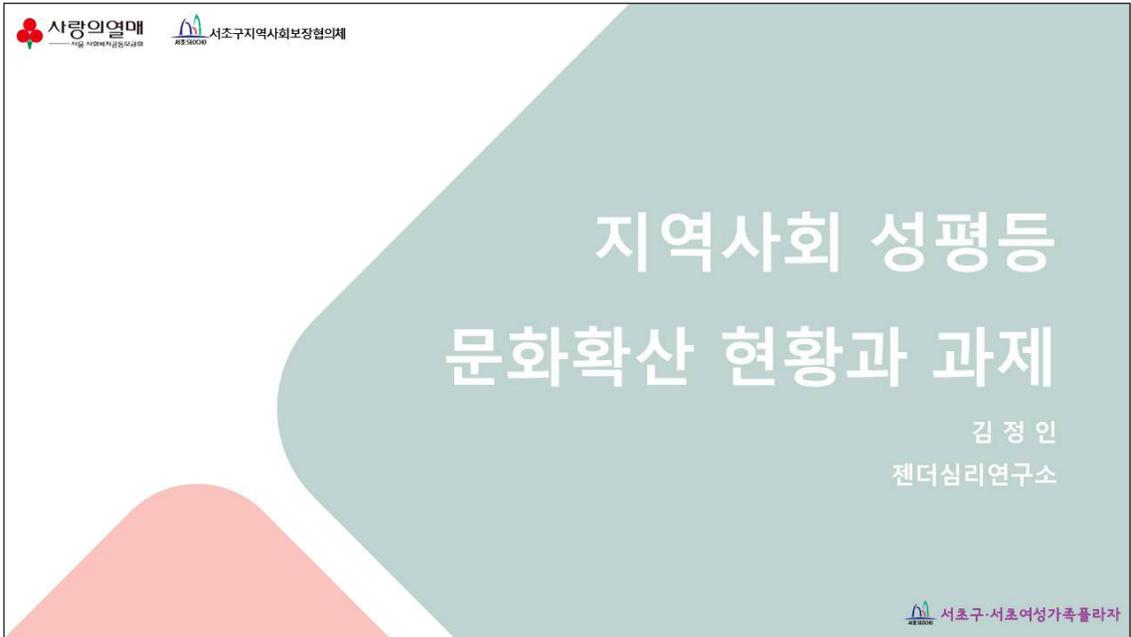
안상수(2012).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I): 대학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젠더 리뷰, 연구노트.

이수연, 이해림, 강혜란, 김미경, 김하얀(2014).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최유진, 김경희, 장윤선, 한진영(2019). 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1997. A/52/3.18  
September 1997

Slide 01



Slide 02

**성평등(性平等):** 모든 사람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관점을 말한다(UN, 1997).

**성평등의 목적:**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 걸쳐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동일한 권리, 자원, 기회 및 보호를 향유하는 것.

현재 성평등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이며, 성평등 실현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성평등 운동이 전개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세계 주요 인사들이 성평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최고 운영책임자(COO)인 셰릴 샌드버그는 2015년 중국 칭화대 졸업식 축사 말미에 “양성평등은 여성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좋다.”라고 언급했다.

Slide 03

스위스 다보스에서 지난 1월(2016년)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까지



사진 =인터넷 구글 캡처

융합한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일까?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셰릴 샌드버그는 세계경제포럼 특별강연에서 **“성별 다양성 확보”**를 답으로 제시했다. 즉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새로운 혁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Slide 04

## 우리사회 성평등 현황과 문제

### ✓ 우리의 성평등 현황

- 불평등지수(GII)는 생식건강(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권한(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 노동참여(경제활동참가율) 등 3개 부문 5개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2017, 2018, 2019년 연속 10위를 기록
- 성별격차지수(GGI): '경제 참여 및 기회' 부문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유사업무 임금 성비, 추정소득, 관리직 비율, 전문직 비율' 성별 격차;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 권한' 성별 격차. 우리나라는 140여 개 국가 중 2017년 118위, 2018년 115위, 2019년 108위로 세계에서 하위권.
- 이 두 가지 상반된 지수는 **경제·정치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혜택을 남녀가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

Slide 05

## 우리사회의 성평등

- **성불평등지수(GII, UNDP 보고)** : '성불평등지수(GII)'는 과거 UNDP가 발표했던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폐기하면서, 새롭게 개발하여 201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성평등 지수
  - 2015년 23위/155개국
  - 2017년 10위/188개국
  - 2018년 10위/189개국
  - **2019년 10위/189개국**
- UNDP의 '2019년 인간개발보고서



그림출처: 연합뉴스

GII는 ▲ 생식건강 ▲ 여성권한 ▲ 노동참여 등 3개 영역 한국의 순위 상승은 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이 줄어든 덕이 크다고 봄. 중등교육이수 여성비율, 여성의원비율경제활동참가율 등

Slide 06

## 우리의 성별격차



화면캡처: jtbc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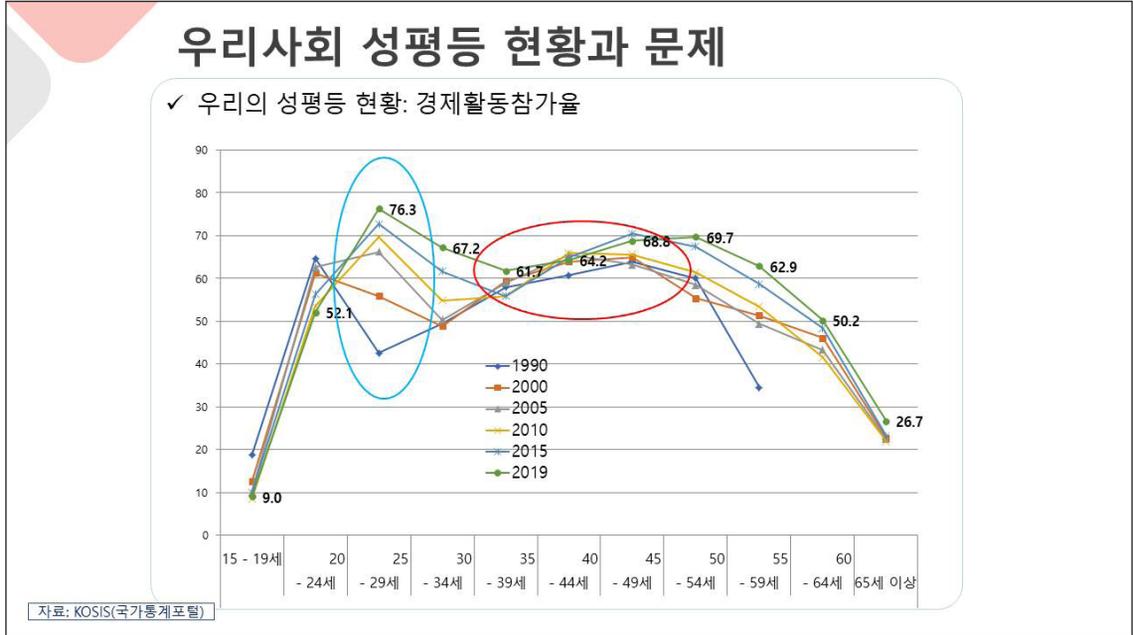
2014년	142개국	중	117위
2015년	145개국	중	115위
2016년	144개국	중	116위
2017년	144개국	중	118위
2018년	145개국	중	115위
<b>2019년</b>	<b>153개국</b>	<b>중</b>	<b>108위</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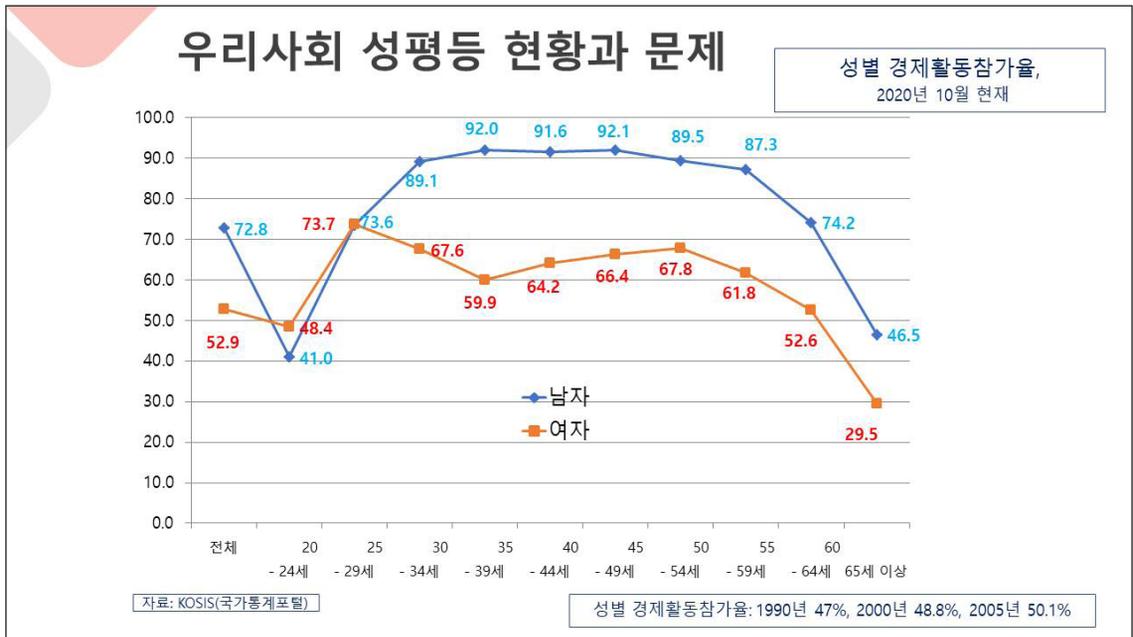
사진: 구글(google) 이미지 캡처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연례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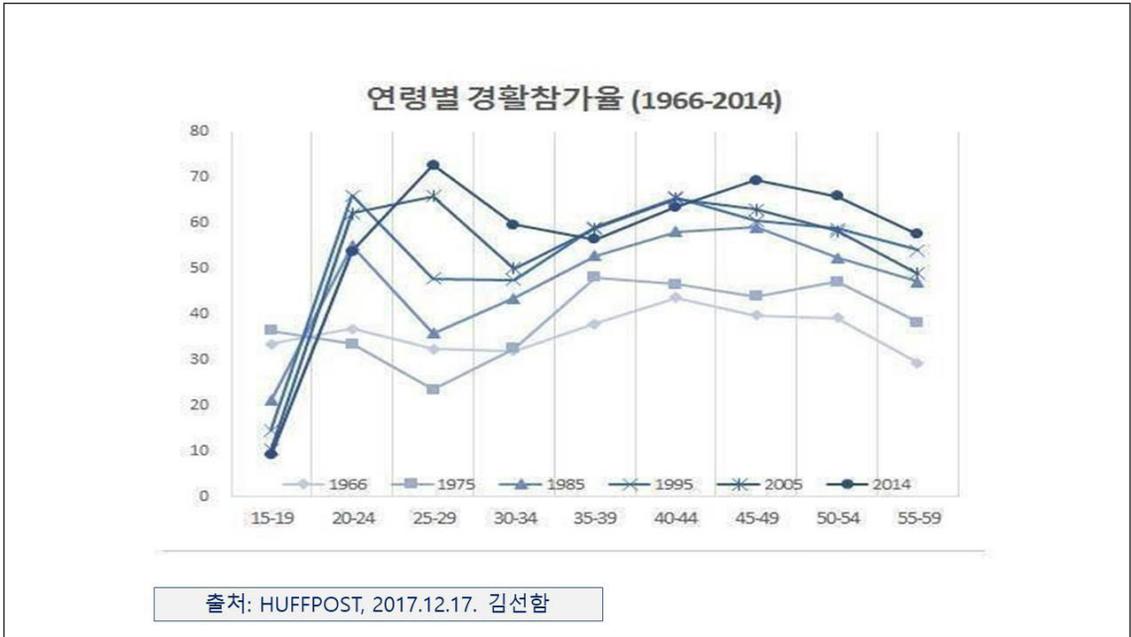
Slide 07



Slide 08



Slide 09



Slide 10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최근 20년간 남성 70-75%, 여성 50% 내외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성별로 약 20%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는 20%p의 격차를 보이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시작점이 연도별로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90년대 들어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20대 초중반에서 꺾이던 것이 2000년대 중반부터는 중후반에서 꺾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결혼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점(초혼 연령의 변화)을 들 수 있다. 한편 20대 중후반까지는 남녀 간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러던 것이 30대를 넘어가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이후 조금 증가하기는 하지만 20대 중후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30년간 20대 중후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당폭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나,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아마도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이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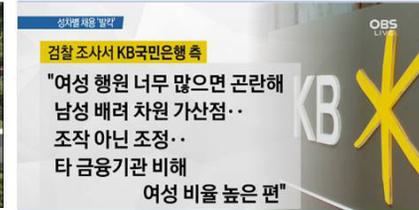
Slide 11

## 우리사회 성평등 현황과 문제

- ✓ 성평등을 저해하는 제반 사건들과 그 배경



분노의 분칠/사진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출처: OBS 뉴스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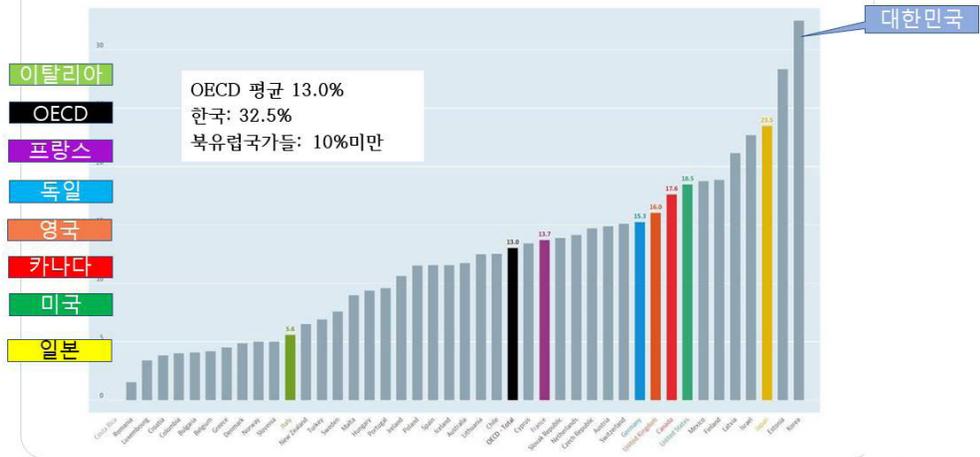
현대판 남존여비(男尊女卑)?

“여성 뽑지 말라” 점수 조작 7명 낙방시킨 가스안전공사

Slide 12

## 우리사회 성평등 현황과 문제

- ✓ 우리의 성평등 현황 : 성별 임금 격차(OECD 2019년 기준)



구글(Google) 이미지 캡처

Slide 13

## 우리사회 성평등 현황과 문제

✓ 우리의 성평등 현황: 여성관리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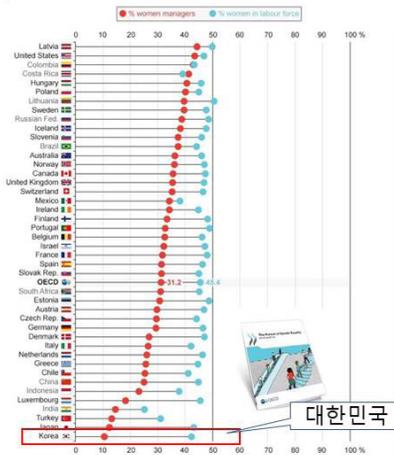


자료: UN 2018년도 각국 여성관리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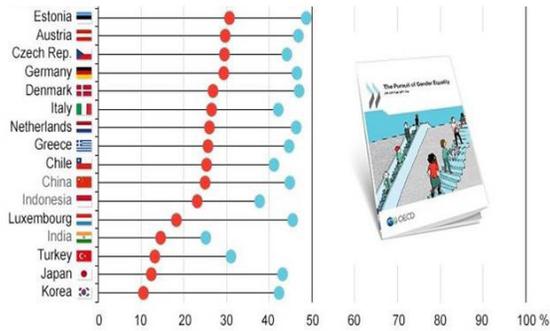
구글(Google) 이미지 캡처

Slide 14

Women are under-represented in management positions  
Female share of managers and labour force, 2015 or latest available year



✓ 우리의 성평등 현황: 여성관리직 비율



OECD partner countries and accession candidates are indicated in grey.  
Source: OECD (2017),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An Uphill Battle, Fig. 11.3.  
More data on gender: [oe.cd/gender](http://oe.cd/gender).



OECD 전체 평균: 45.4% vs 31.2%  
우리나라 : 40% 조금 넘음 vs 10%

출처: <https://www.facebook.com/theOECD/photos/a.10150177273897461.304209.73290362460/10154807750167461/>  
출처: <https://pugeun.tistory.com/entry/ratio-of-female-managers-in-oecd-countries> [@푸근]

Slide 15

## 우리사회 성평등 현황과 문제

### ✓ 우리의 성평등 현황

맞벌이 부부: (2015 보건복지부)

가사노동 여자-3시간 14분(194분), 남자-40분 4.9배

자녀양육시간-여 평일2.48시간, 주말4.21시간

남 평일0.96시간, 주말2.13시간



구글(Google) 이미지 캡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 '일 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연구: 맞벌이 부부의 주중 시간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 129.5분, 남편 - 17.4분 가사노동시간 여성이 7.4배 길고 육아 시간도 3.5배나 김.

경상북도 출신 남편과 경기도 출신 남편 비교(2015년)

경상북도 출신 남편과 결혼한 경우 가사노동 68분을 더 함

Slide 16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및 성별분업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보인 남성 이사장, 인사담당자 및 공공기관의 사장이 보인 태도들은 다분히 성역할 고정관념에 입각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성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차별적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 내에서의 부부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도 가사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의식의 변화를 이를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Slide 17

## 성평등 문화 확산

- ✓ 성평등한 문화의 확산
  - 교육이나 캠페인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성평등하지 못한 의식이나 관행을 개선하는 것
- ✓ 관련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절, 양성평등기본계획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5조, 제12조, 제20조
  - 서초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장 제4절

Slide 18

##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 ✓ 성평등교육
  - 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
  - 관련주체: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족여성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과 등
- ✓ 성평등 미디어
  -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
  -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

Slide 19

##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사진=한국양성평등교육원 전경)  
사진출처: 이투데이, 2016-01-07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원

Slide 20

##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 ✓ 성평등 문화축제
  - 성평등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한 편으로 이를 언론이 다루도록 하여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방식
  - 특정 기간 성평등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국민 혹은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축제형식의 이벤트
  
- ✓ 민간단체의 문화개선 캠페인
  - 성차별적 가치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유용한 틀
  - 대중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며, 다양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Slide 21

##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서초구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양성평등주간행사 포스터

\*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양성평등, 실용!  
함께 웃는 세초!**

**기념식**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 제1회 서초여성성 사당
- 축하공연 어카펠라그룹 '올레소'

**행사특강**

김민정 (가정복지팀장)  
고양활동목 팀장께서는 정말

**주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주최** 02-522-0291/76291

2019. 7. 3(수) 오전 10시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서초구 성평등 지원도 그리기**

**서초구의  
성평등활동가를  
찾습니다**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는 지역 성평등활동가 활동 지원을 위해  
성평등한 서초구 만들기 위해 관심있는 활동가를 찾습니다.  
활동단체 및 활동가로 등록하신  
무료 회의공간, 시용 및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모집기간 : 상시모집**

<p><b>모집목적</b></p> <p>서초구 성평등 분야인 단체 및 활동가 기반 구축</p>	<p><b>지원내용</b></p> <p>활동 역량강화 교육, 성평등 교육, 사업지원 회의공간 대여 등</p>
<p><b>모집대상</b></p> <p>서초구 내 지역 활동가, 비영리 단체, 개인 등</p>	<p><b>참여방법</b></p> <p>신청서 작성 후 활동가 지원 가능</p>

02)522-0292 [www.seochoequality.org](http://www.seochoequality.org)

서초구 성평등 활동센터

출처: 나눔뉴스, 2019.6.24. 정다운 기자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 홈페이지 ([www.seochoequality.org](http://www.seochoequality.org)),

Slide 22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

- ✓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의 활성화**
  - 성평등 인식확산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문화가 조성되고 이를 확산시키려면 지역사회 활동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시민을 지역 활동가로 양성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서초여성플라자와 연계
  
- ✓ **남성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으로 바뀌고 있음
  - 해외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성평등에서 남성이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지원
  -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평등 체험 프로그램 마련

Slide 23

성평등을 위한  
연대운동

**A Solidarity  
Movement  
for Gender  
Equality**

UN women이 주관하는  
**히포시(HeForShe)** 운동의 He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여성과 함께 노력하는 남성들”  
을 뜻합니다.

**남성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



2014년 9월 유엔여성 친선대사인 엠마 왓슨은 히포시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여성을 위한 남성의 운동’이란 뜻이죠 남성들에게 성평등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는 캠페인입니다



엠마 왓슨의 뜻을 따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히포시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히포시 캠페인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여성신문

Slide 24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

- ✓ 젊은 층의 참여확대
  -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확산전략이 필요
  - 전문가들은 성평등주간의 이미지를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참여 증진해야 한다고 함.
  
- ✓ 성평등 직장문화 교육과 캠페인
  - 직장 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는 각 개인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들과 연계하여 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음.

Slide 25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

- ✓ 서초구 성인지 통계 작성
  -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 공헌, 남녀의 욕구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고자 생산, 제시된 통계자료인 성인지 통계는 성별로 처한 현실을 확인시켜주고, 고용, 교육, 복지, 안전 등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음.
  - 향후 성인지 정책 구현과 성평등 문화사업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서초구 성인지 통계 작성이 필요함

Slide 26

감사합니다.

발표 2

# 서초지역의 성평등 활동 현황 및 지원방안

---

밸류가든 최은영 사무국장

## 초록

벨류가든은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가치들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센터로서 2013년부터 서초 지역에서 시민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공익활동을 기획, 운영하고 또 기록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일상의 민주주의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을 때 실현될 수 있다. 벨류가든은 지역에서 다양한 층위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단체의 비전인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낼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또한 벨류가든이 가지고 가야 할 하나의 가치이자 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벨류가든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인권, 다양성의 가치와 더불어 여성주의와 성인지 감수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기획해오고 있다.

본 발제를 통해 벨류가든이 시민을 만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활동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녹여내었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또한 벨류가든을 비롯한 다른 단체들의 성평등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풀뿌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평등 활동의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풀뿌리 성평등 활동들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고 또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또한 필요하다. 또한 성평등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와 협업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과의 연계와 연대가 이루어지면 성평등 의식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구성원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감각 중 하나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이 문화로서 지역 사회 전체에 뿌리내리고 확산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작업들을 지역 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함께 공론화하고 발전시켜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서초지역의 성평등 활동 현황 및 지원방안

## 1. 벨류가든의 성평등 활동

### 1. 벨류가든이 성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

벨류가든은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가치들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센터이다. 2013년부터 서초지역에서 시민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공익활동을 기획, 운영하고 또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다. 벨류가든의 성평등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시민교육을 하는 벨류가든이 어떻게 성인지 감수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소개하려고 한다.

벨류가든은 2016년 <돌봄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돌봄인문학>은 돌봄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문학적 통찰에 주목하며,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다. 책을 읽고 사유하는 행위는 아이라는 존재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존중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또한 아이를 키우는 과정, 존재로서의 한 인간의 성장을 온전히 돕는 과정에서 여성은 세상과 인간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열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동시에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도전과 문제를 직면한다. 고단한 돌봄의 과정에서 여성은 충동을 경험하며 그것을 점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공감대 안에서 문학, 역사, 철학, 예술 텍스트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가치를 함께 읽어 나가는 <돌봄인문학> 시간에는 아이를 키우는 지역의 여성 참가자들은 돌봄의 의미,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돌봄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벨류가든은 지역에 다양한 여성의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단지 ‘아줌마’, ‘주부’, ‘OO맘’으로 명명되고 일반화되는 기혼 여성들의 범주 안에서 그들 각자의 삶의 배경과 정체성, 경험은 하나하나 고유하고 다채롭다. 점처럼 존재하는 각자의 이야기들 - 양육을 하는 여성들이 성역할과 모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기쁨과 슬픔 - 이 단지 하소연이나 사담으로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발화되고, 또 기록되어 사회로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천일망화 - 각자의 이야기, 모두의 이야기>는 벨류가든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해 이 시대를 사는 엄마들 한명 한명의 다양한 입장과 관점, 목소리를 4번의 대화모임을 통해 구체적으로 듣고 기록하여 책자로 발간했던 프로젝트였다.

일상의 민주주의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누구나 성별, 성정체성, 신체적 조건, 나이, 출신 지역, 학력, 종교, 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기회나 권리를 제한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벨류가든은 지역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단체의 비전인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낼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또한 벨류가든이 가지고 가야 할 하나의 가치이자 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벨류가든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인권, 다양성의 가치와 더불어 여성주의와 성인지 감수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기획해오고 있다.

## 2.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참여활동

이후에도 벨류가든은 서초지역에서 풀뿌리 시민사회 활동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층위와 경험, 관심사를 가진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연구자, 예술가, 활동가, 경

력보유여성, 동네에서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은 여성, 자기의 주제와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자유롭게 탐구하고 공부하는 여성들과 결합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활동을 진행해왔다. 또한 벨류가든은 그동안 이렇게 개인으로만 머물렀던 여성들이 지역에서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왔다.

여성들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직접 취재해 마을매거진을 발간하기도 하고,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민주주의 가치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도 여성주의와 성인지 감수성을 녹여 진행하였다. 성평등 ‘인식의 확산’과 ‘제도의 개선’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지역의 여성주의 활동가들과 결합하여 여성주의 소모임 ‘소담’을 만들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서초구의 사업과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젠더거버넌스에도 올해까지 4년째 참여해오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로서 동네 책방 ‘책읽는 정원’을 운영하며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는 시민 책방지기들과 결합하여 지역에서 여성주의 도서들을 소개하고 관련된 책모임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 3. “젠더 감수성으로 가꾸는 민주주의의 정원”

2019년 벨류가든은 서초구 양성평등기금의 후원을 받아 “젠더 감수성으로 가꾸는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직면한 성평등(젠더) 이슈를 관찰, 발견을 통해 생각과 의견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는 프로그램의 대상과 구성을 확대하여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화와 공감의 자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여 젠더 감수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 (1) 벨류가든 여성주의 문화예술 아카데미

- <벨류가든 여성주의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인문, 예술 콘텐츠를 함께 경험하며 발견한 성인지 이슈들을 나의 일상 및 사회 현상과 연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2019년에는 책, 영화, 그리기 등의 예술 모임과 자기 돌봄을 위한 밥상 모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다.

- 작년에 이어 올해는 <찾아가는 여성주의 문화예술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지역 곳곳의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여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 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모임의 신청을 받아 참가자들의 눈높이와 특성, 구체적인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각각의 세대가 직면한 젠더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그림책, 문학, 글쓰기, 영화, 미술, 미디어, 움직임 등)를 통해 참가자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지난해의 형식을 그대로 이어나가되 올해는 참가자의 생애주기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진행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그림책 읽기에서부터 청소년이 성인지적 관점으로 자신의 주변과 지역을 돌아보고 조사해보는 청소년젠더이슈리서치, 청소년 상담 봉사자들을 위한 페미니즘 영화 감상회, 성인들을 위한 여성주의 글쓰기 모임, 양육자를 위한 성교육이나 손녀,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들을 위한 성평등 교육까지 다양한 세대의 젠더 이슈를 다루고 또 참가자의 목소리를 듣는 시도를 했다.
- 또한 올해 코로나 19 상황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Zoom을 통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전환하게 되면서 운영의 제약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만날 수 있는 확장성을 경험하기도 했다.

## (2) 젠더이슈 오픈테이블

- <젠더 이슈 오픈테이블>은 ‘가족’, ‘학교’, ‘직장’이라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세 가지 공동체를 성인지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집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3회에 걸쳐 진행된 모임을 통해 그러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 공동체가 여성을 바라보는 방식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 바라는 기대와 지향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쌓고 연대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 (3) 성평등 활동가 교육

- 성인지 감수성은 비단 성평등 활동가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 주제를 가지고 시민을 만나는 활동가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활동가는 성별에 따른 특성과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스스로를 교육하고,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

평등 활동가 교육의 경우 모든 영역의 시민사회 활동가와 또 성평등 이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어두고 성평등 활동가 교육을 기획했다.

- 여성환경연대의 장이정수 상임대표님을 강사로 모시고 <나의 몸, 나의 시대, 나의 지역>이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자신의 몸에서 출발해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와 지역에서의 성평등 활동에 대한 비전을 구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돌봄 영역에서의 여성주의>라는 주제로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백소영 교수님의 강의를 함께 들으며 세대별 페미니스트들의 돌봄에 대한 관점과 지역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참가자 각자가 자신만의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기도 했다.

벨류가든은 풀뿌리 시민단체로서 지역의 시민사회, 풀뿌리에서부터 요구되는 것, 시민들의 작고도 다양한 목소리에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왔다. 성평등과 관련한 이슈도 그러한 시민의 목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목소리는 곧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반영한다고 본다. 벨류가든이 시도하고 있는 실험과 작은 움직임들이 시민들이 일상에서의 성평등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 하고, 또 실천으로 연결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시민의 성장을 돕는 배움의 시간과 경험을 제공하여 사회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

## II. 서초 지역 성평등 활동 현황

### 1.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사업

서초지역은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참여한 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다. (자료: 서초구청)

단체명	사업명
모두의 거실	문학으로 찾아가는 내마음의 안전기지
사회적협동조합 나라인재개발원	가정·학교·성폭력 예방강사 양성과 상담활동
서초나비마을넷	마을에서 배우고 만드는 성평등 문화
별류가든	서로 돌봄과 살핌으로 만드는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서초여성봉사회	여성 시니어 자원봉사 활동단체의 사랑의 반찬나눔
(사)한국진로직업개발원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모되기
양재천사	온가족이 함께하는 양재천 만들기
서초나코치단	AI(분야) 진로·부모코칭 강사교육 및 강사활동
아이랑부모 樂	아이랑 부모樂 “아이 함께 기르기”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여성주의 & 생활연극 워크샵
서초어울림봉사회	미혼모 지원봉사 및 경로당 청소 봉사
좋은세상한울림	함께하는 양성평등

## 2. 다양한 소모임, 의제모임 활동

그 밖에도 최근 서초지역에서는 성평등 이슈를 주제로 한 모임, 공론장, 교육, 워크숍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성주의 소모임 ‘소담’이 지난 8월 서초구에서 진행했던 온라인토론회 ‘아이스께끼에서 N번방까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피해자 관점, 법리적 해석, 언론과 미디어, 성평등 예방 교육 등 다각적인 시각으로 다루며 사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동남권NPO지원센터 서초구 워킹그룹 안의 ‘성평등 실천 의제 모임’은 지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고민하고 실행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입니다. ‘성평등실천 의제 모임’은 11월 ‘성평등 부부캠프’를 열어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인식 차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과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 III. 서초의 성평등 활동 지원에 대한 제언

#### 1. 활동가 지원 및 발굴

##### (1) 성평등 활동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서초 지역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민사회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환경과 생태, 인권, 민주시민교육, 자원봉사, 육아, 청소년, 자원봉사 등 여러 가지 의제와 형태로 활동가들은 주민을 만난다. 활동가들이 주민들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사소통하며 각자의 의제 안에서 공익활동의 영역에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뿌리 깊이 박혀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그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감각이라는 개념을 넘어 모든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실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성평등 활동을 하는 활동가, 강사들에게도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 성평등 활동은 시민사회 활동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지만, 활동가의 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주의와 젠더 이슈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신규 활동가를 발굴하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필요하다.
- 또한 교육 참가자들의 활동 연차, 다양한 주제와 교육 방식을 적용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신규 활동가를 양성하고, 또 기존 활동가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를 희망한다.

##### (2) 성평등 활동 모니터링

- 현장에서 성평등 활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풀뿌리 현장

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듣고 또 활동의 내용과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인적, 물적 지원은 성평등 활동가들과 단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러한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지역의 성평등 활동 지원과 관련한 정책 수립이나 프로그램 기획에 기초자료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 활동의 인프라 지원

- 작은 단체나 소모임, 동아리를 기반으로 하거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실질적 인프라는 크게 공간, 홍보, 행정적 지원일 것이다.

#### • 공간

- 활동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프라 중 하나는 회의를 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 공간, 또한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활동가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다.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좋지만, 지역 내에 있는 유휴 커뮤니티 공간, 도서관과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간과 성평등 활동이 연결될 수 있다면, 활동가들과 단체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홍보 없이도 기존의 공간에 방문하던 주민들에게 성평등 활동에 대해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

#### • 홍보 플랫폼

- 좋은 기획과 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활동가들은 늘 고민한다. 성평등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정보가 온, 오프라인의 홍보 경로를 통해 잘 닿아질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홍보 플랫폼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활동가와 단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 • 행정적 지원

- 개인 활동가와 작은 단체들은 활동하면서 세무회계, 노무, 문서 관리, 단체와 활동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다. 특히 세무, 회계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여서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에 대한 활동가들의 수요가 많다. 또한, 주민이나 활동가가 성평등과 관련한 모임, 동아리,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컨설팅 지원이 있다면 서초지역에서의 성평등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연대와 협업, 네트워킹

### (1) 서초구 성평등 활동가 네트워크 조직

- 서초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평등 활동가들을 찾고 연결하여 활동가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지역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활동을 지지해주고, 서초지역 전체의 성평등 문화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업의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류의 장을 넘어 정기적인 공론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기를 기대해본다.

### (2) 다양한 의제의 시민 활동과 연대

- 성인지 감수성은 어느 활동의 분야에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태도이며, 또 다양한 의제와 결합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이다. 환경과 생태, 먹거리,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민주주의, 인문학, 예술, 미디어, 마을공동체,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시민 활동의 영역과 연계하여 활동을 확장하고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 (3) 행정, 공공기관과의 협업

- 서초구에는 다양한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단체, 도서관 등의 기관이 존재한다. 시민사회 성평등 활동가들이 기관과 결합하여 직원들을 위한 성평등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든지,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 방식, 공간의 구성, 홍보물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 3. 연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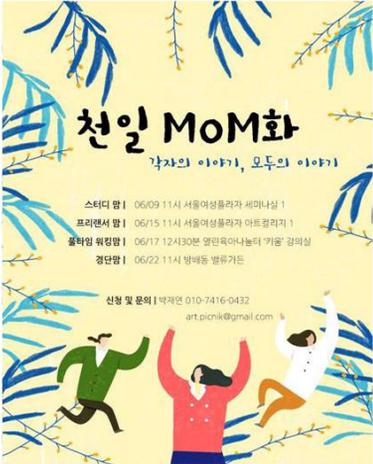
- 성평등 활동에 대한 방향성과 정책 수립,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서초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활동가와 단체들도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과 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주민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활동가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체계화되길 바란다. 일반 주민들도 성인지적 감수성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캠페인의 방식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인권 의식과 성인지적 감수성에 대한 교육은 중요한 시민교육의 영역 중 하나로서 전 생애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생애주기별로 대상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연구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 또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평등 활동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기록하는 일이 필요하다. 활동의 현황과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성평등 활동 지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개별 활동가와 단체들도 아카이빙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을 회고하고 돌아봄으로써 활동의 의미와 보람을 되새기고, 또 앞으로의 활동을 해나가는 데에 동기부여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주로 여성이 그 역할을 맡아왔던 가사, 육아, 돌봄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서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왔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지역과 사람, 시민사회 활동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소수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담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뜻깊은 작업이 성평등 활동의 일환으로 서초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한 교육은 중요한 시민교육의 영역 중 하나로서 전 생애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생애주기별로 대상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연구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 행정의 단위에서 성평등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것 못지않게 풀뿌리에 있는 기존의 다양한 단체와 활동들이 지속 가능하게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민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과 목소리들의 기저에 있는 흐름을 파악하고, 이것을 사회 현상으로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Slide 05

## 시민교육센터 벨류가든이 성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



### 천일맘화 (2017)

이 시대를 사는 엄마들 한명 한명의  
다양한 입장과 관점, 목소리를 담은  
대화모임 기록집

“각자의 이야기가  
곧 모두의 이야기”

Slide 06

## 시민교육센터 벨류가든이 성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

**\* 일상의 민주주의 \***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때 실현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누구나 성별, 성적체성, 신체적 조건, 나이, 출신 지역, 학력, 종교, 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의 형태 등에 따라 기회나 권리를 제한당하거나 차별받아서 안됨

**\* 성인지 감수성 \***

일상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낼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의식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가치이자 태도

Slide 07

##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참여활동



\*

다양한 층위와 경험, 관심사를 가진 여성들과의 연결과 모임, 활동을 통한 **성평등 이슈의 공론화**



\*

개인으로만 머물렀던 **여성들이** 지역에서 새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활동의 플랫폼의 역할**

Slide 08

##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참여활동

### 여성의 삶을 담은 마을잡지 발간






### 젠더거버넌스 활동




Slide 09

##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참여활동

### 시민참여 프로젝트 책방 - 책읽는 정원




Slide 10

## “젠더 감수성으로 가꾸는 민주주의의 정원”



### 프로그램의 취지

시민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직면한 성평등(젠더) 이슈를

1. 관찰, 발견을 통해 생각과 의견을 나누며 공감하고
2. 나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 전환하여
3. 젠더 감수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을 돕는다.

Slide 11

## “젠더 감수성으로 가꾸는 민주주의의 정원”

### 벨류가든 여성주의 문화예술 아카데미 (2019)

- 인문, 예술 콘텐츠를 함께 경험하며 발견한 성인지 이슈들을 나의 일상 및 사회현상과 연결



2019 벨류가든 여성주의 문화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표. 대안 1주부터 12주까지의 다양한 주제와 시간, 장소, 강사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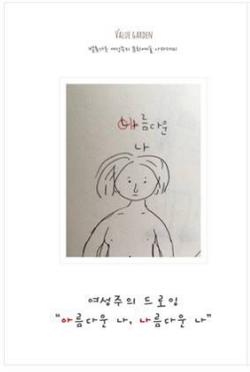


아카데미 수업 현장 사진들. 참가자들이 책과 자료를 보거나, 토론을 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Slide 12

## “젠더 감수성으로 가꾸는 민주주의의 정원”

### 벨류가든 여성주의 문화예술 아카데미 (2019)



여성주의 드로잉 수업 자료. '아름다운 나, 나쁜 아름다운 나'라는 주제를 다룬 그림과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아카데미 수업 현장 사진들. 참가자들이 드로잉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Slide 15

## “젠더 감수성으로 가꾸는 민주주의의 정원”

### 젠더이슈 오픈테이블 (2019)

- 내 주변을 둘러싼 공동체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집담회

Slide 16

## “젠더 감수성으로 가꾸는 민주주의의 정원”

### 성평등 활동가 교육 (2020)

- 시민을 만나는 활동가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

\* 슬라이드 자료  
- 여성환경연대 강이정수 상임대표 (위)  
- 강남대학교 박소영 교수 (아래)

Slide 17



Slide 18

## II. 서초구 성평등 활동 현황



Slide 21

### III. 서초구 성평등 활동 지원 방안

Slide 22

#### 서초의 성평등 활동 지원 방안



1.

활동가 지원 및 발굴



2.

연대와 협업, 네트워킹



3.

연구, 기록

Slide 23



Slide 24



Slide 25

## 서초의 성평등 활동 지원 방안



**3.**  
**연구, 기록**

- 지역의 공간, 역사,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 활동가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 시민교육이자 평생교육으로서 성평등 교육을 인식하고 연구, 개발
- 민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평등 활동과 목소리의 기저에 있는 맥락을 파악하고, 이것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Slide 26



감사합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초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초구-서초여성가족플라자

# 토론자료

---

최유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영주(모두의거실 대표)

서경란(서초구청 여성보육과 과장)

# 토론문 1

**토론자** 최유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초지역의 성평등 활동의 주체는 성평등활동센터, 성평등 풀뿌리 단체, 성평등 활동가뿐만 아니라 서초구청과 의회도 함께 할 필요 있다.
  - 성평등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크로스 섹터(Cross-Sector) 의제이기 때문에 한 두 분야, 한 두 그룹의 노력으로 정착되기는 어렵다.
  - 서초구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도 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있다. 해당 조례는 양성평등기본계획에 근거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하지만, 서초구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와 관련된 기회와 자원의 측면과 관련된) 성평등 실현에 어떤 장애가 있고, 누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화된 진단과 체계적인 개선계획이 수립·실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 더불어, (발제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생활권별 경제적 시간적 자원, 일과 돌봄 현황, 건강과 안전 등의 여건에 대한 대표성 있는 현황 자료 구축을 위해 구민 대상 조사통계 구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육, 미디어 매체 개선, 캠페인뿐만 아니라 여성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고, 다양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전체의 실행이 필요하다.
  - 즉, (소위 여성적인 활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야뿐만 아니라) 성역할 분리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고, 모든 구민이 모든 분야의 이슈에 대해 여성의 목소리를 더 자주 더 가까이서 들

을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여성의 활동이 가시적으로 되도록 기회와 여건을 탄탄히 확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 여성들이 쉽게 모이고, 활동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공간, 공모사업, 사회적 관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는 촘촘한 육아 인프라,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인프라 등이 필수적인 여건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 성평등 지표를 만들든 성인지 통계로 조직화하든 이런 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있다. 모니터링 결과는 여성 그룹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행정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개선 활동을 실행해야 성평등 실현이 가능하다.

## 토론문 2

**토론자** 남영주(모두의 거실 대표)

### [발제1.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 현황과 과제]

2020년 코로나는 모든 분야해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다. 우리는 준비 없이 맞닥드려졌고 현실에선 그 전환 속도를 감당하기 버거워하고 있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돌봄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성평등에 대한 불편한 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발제 내용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평등 현황과 문제 대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경제활동참가율이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불평등한 문화 속에서 형성된 고정관념과 성별 분업으로 분석하는 점에 있어 공감된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역할에 있어 임금 격차는 크게 다가오는 요소이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의 출산과 함께 기쁨을 뒤로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다. 누가 어떻게 아이의 양육을 담당해야 할까? 이런 결정에 있어 남성과 여성 누가 일을 그만둘 것인가? 이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임금이다. 임금 격차를 좁혀야 남성도 여성도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보여주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업무 라인의 시스템화가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해본다. 누가 근무하느냐가 아닌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느냐가 되어야 한다. 그 래야 구별된 성 역할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누가 일해도 일이 돌아가는 것이다. 발제자가 제안한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방안 중 성평등 교육을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 본다. 생애주기별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마다 적절한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발제자의 성평등 미디어에 대한 의견에 공감합니다. 손안에 핸드폰은 우릴 더 쉽게 더 멀리 세상을 만나게 한다. 성평등에 대한 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도 미디어는 반드시 활용해야 함과 동시에 안정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발제자가 제시한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를 지역 활동에 적용되도록 해야한다. 성평등 활동가 양성과 활동가의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평등에서 양성평등 한 걸음 더 나가 남성 여성의 이분적 분리에서 다양한 성평등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 [발제2. 서초지역의 성평등 활동 현황 및 지원방안]

서초구 양성평등 기금 후원을 받아 벨류가든이 진행한 문화예술 기반의 프로그램은 책, 영화, 그림, 음악, 움직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진행함으로써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성평등교육이 시민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본 토론자는 벨류가든이 시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실시된 성평등 교육이 지역 현장으로 확산되는 두 가지 사례를 추가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로 서초구 사단법인 가배울은 2016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을 받아 ‘스토리텔링으로 자유로운 엄마 되기, 창조적 아이 기르기’ 프로그램을 통해 총 16강의 성평등 교육을 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역으로 돌아가 배운 내용을 나누는 모임인 ‘여자의 독서’를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5년째 지속하고 있다. 올해 모두의거실에서 서초구 양성평등 기금을 지원받아 활동가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학을 통한 ‘내 마음의 안전기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기 돌봄을 기반으로 안전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과정 안에서 채워진 에너지를 지역에서 풀어내었다. 지역연대를 위해 ‘여자의 독서’ 모임이 주도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성평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위의 사례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 문화의 씨앗을 주고 그 씨앗이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게 된 것으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하나의 예다. 생애주기별 교육을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박자를 맞추는 것은 중요하다. 벨류가든의 세대별 교육프로그램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발제가 언급한 성평등 활동가 교육은 중요하다. 성평등 활동가 대상 교육과 활동가 대상 성평등 교육은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 즉, 목적과 대상에 따른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다. 성평등 활동가 대상은 지역을 반영하고 시대를 앞선 교육을 담아내야 한다. 활동가 대상 성평등 교육에 있어서는 시민을 만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태도, 자세, 예의 등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실천교육을 담아야 한다.

활동의 인프라 자원으로 공간, 연대, 그리고 연구 및 기록에 대한 제안에 공감한다. 첫째, 공간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신뢰 있는 공간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성평등 활동가와 지역활동가의 연대를 제안한 것에 공감한다. 활동이 활동으로 연결되어 지역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그 활동이 꽃을 피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한 연구 및 기록은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성장계기를 주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 토론문 3

**토론자** 서경란(서초구청 여성보육과 과장)

### 자치구 성평등 활동지원 역할과 과제

2018년 그리고 2년 뒤 2020년 해일처럼 몰려왔던 미투(#me\_too), 데이트 성폭력 사건, 조주빈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여성 차별적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차별과 폭력에 대한 민감성도 전에 없이 높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상은 아직도 불평등하다. 성평등과 인권 존중은 시대의 과제이나 모두의 일상에 있지는 않다. 성별 갈등이 소환되고 관련 이슈와 담론이 범람하지만, 무엇이 바뀌고,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고 성평등은 왜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모두 성평등에 대한 인식,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다.

매년 WEF(세계경제포럼)에서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여 순위를 매기는데, 2020년(2019년 기준) 한국은 108위로 낮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성평등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과연 우리는 성평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며, 자치구에서는 어떤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가?

서초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2008년 설치하고 2010년부터 지원사업을 공모하며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아동·여성의 안전, 취약계층 복지 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0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0년 2개 단체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12개 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문학을 통해 여성들이 치유활동을 펼치도록 돕는 <모두의 거실>, 가정·학교 성폭력 예방강사 양성과 상담활동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나라인재개발원>, 마을에서 배우고 만드는 성평등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서초나비마을넷>, 맞춤형 성평등 교육을 펼치는 <밸류가든>, 관내 홀로어르신들과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반

찬꾸러미를 나누어주는 <서초여성봉사회>, 미혼모 여성의 아기들을 위한 봉사와 경로당 청소봉사를 하는 <서초어울림봉사회>, AI시대 진로코칭, 부모코칭 강사교육 및 활동을 펼치는 <서초나비코치단>,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양재천 카페에서 비대면 온라인 음악회를 개최한 <양재천사>, 공동육아 캠페인을 벌이는 <아이랑부모락>,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모되기를 목표로 교육하는 <한국진로직업개발원>, 관내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널리 펼치고 있는 <한울림>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 중에 젠더심리연구소 김정인 소장님이 발제하신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랑 부모락>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밥상머리 교육’, ‘우리가족 캠프’라는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고 있다. 아빠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인기 교육이라고 하니, 매우 뜻깊다. 이와 같은 남성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프로그램이 증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초구에서는 양성평등기금 지원 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단체에 인센티브 부여, 사업 활동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구는 2016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다섯 가지이며, 현재 ‘여성친화도시’ 지정시점이 4년이 지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업수립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여성들의 능력 개발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현재 내곡, 잠원·반포, 서초센터 3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 방배권역이 완성되면 권역별로 여성가족시설이 모두 생긴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서초구 내 1년 이상 거주한 고용보험 대상 남성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서초 아빠육아휴직장려금제도’, 조부모들의 황혼육아를 지원하는 ‘서초형 손주돌보미 제도’,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돌보미를 파견하는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 최근 11월 개소한 엄마들의 포근한 쉼터가 될 ‘서초엄마힐링센터’, 서초여성들의 심야시간 안전귀가를 돕는 ‘안심귀가 반딧불이’, 급증하는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초몰카보안관’과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코칭 교육인 ‘서초 나비코치아카데미’를 5년 동안 지속시키며 여성정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왔다.

더불어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서초 Me2 직통센터’를 설치하고 복잡한 신고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 핸드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고 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구는 직급별 맞춤형 성인지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급 이상 공직자 대상으로는 고위 공직자의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강의를, 6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는 중간관리자의 성희롱 예방법 및 신고 시 대처방법 교육을 진행하여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고자 한다.

또 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직원의 신체, 외모,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이나 업무 등을 지시·강요하지 않으며, 언행에 대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행복한 서초를 위해 공공시설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목적인 ‘공공시설 여성친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서울시에서 추진한 자치구 성평등활동센터 공모에 지원하여 서초구가 선정되었고, 자치구 최초로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를 만들었다.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는 자치구 최초 지역기반 성평등 활동가 양성 및 성평등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네 가지를 주축으로 운영한다. 풀뿌리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공동사업 운영, 성평등 활동 허브, 성평등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성평등 콘텐츠 제작·보급이다.

앞서 발제하신 벨류가든의 최은영 사무국장님과 모두의 거실 남영주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서초구의 성평등 활동 지원에 대한 바람이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다. 성평등활동센터에서 이러한 제반 교육 진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안을 제안한다.

서초에는 많은 풀뿌리 성평등 단체들이 있고, 센터에서는 이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지원하여 활동 공간, 강의 제공 등 네트워크 및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평등 전문가 양성 및 교육도 진행 중이니 풀뿌리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여성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서초를 조성하기 위해 서초여성안심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서초몰카보안관 불법촬영 점검 대상을 관내 학원 1,120개소와 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39개소까지 확대하고, 안심귀가 반딧불이와 몰카 보안관들의 전문성 강화(탐지능력 향상)를 위한 현장 실습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급사항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호신술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많은 풀뿌리 성평등 단체가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 만들어진「공공시설 여성친화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공공시설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가 컨설팅 의뢰 후 그 자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평등활동센터에서는 우리 구 직원 및 관내 위탁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 등)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무상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젠더폭력 해소에 앞장서는 서초를 구현하고자 한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성평등 활동에 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는 구에서만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풀뿌리 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관이 힘을 모아 펼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초구가 앞장서겠다.

# 현장스케치

---

2020 서초성평등네트워크 온라인 포럼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

현황과 과제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된 <서초성평등네트워크 온라인 포럼>에  
관중 대신 많은 카메라가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온라인포럼 #취재열기 #HCN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성별고정관념이 차별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도나 정책 못지않게 인식개선도 중요합니다.”

- 젠더심리연구소 김정인 소장



“성인지적 관점으로 서초구의 사업과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젠더거버넌스에 4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밸류가든 최은영 사무국장



“여성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 편견이나 차별로부터 벗어나는 도전뿐 아니라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 돌아봐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KBS 정용실 아나운서



“성평등은 여성만의 일로 축소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성의 일을 보육이나 돌봄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 연구위원



“미투나 N번방 같은 일들이 일상으로 다가왔고, 내 생활 안에서 성평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인식이 생기고 있어요. 인식을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 모두의거실 남영주 대표



“성평등 인식개선과 정책은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정책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들은 강력하게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서경란 과장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과 관련한 연구, 정책, 현장의 목소리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포럼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포럼영상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유튜브 (<http://www.youtube.com/c/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서 시청해주세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유튜브 #여가플

발행일 : 2020.12.03

발행인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http://women.co.kr>

T. 02-522-0291~2